



## 技術革新의 實現을 為해

# 產學技術革新審議會(假稱)의 設置가 必要

座長 金東一博士提議

50餘 學會任員과 科學技術界 重鎮이 多數 參席한 가운데 開催된 科總創立 6週年 紀念 세미나에서 各 演士는 前記한 內容의 演說을 했고 馬景錫(忠州肥料)理事를 비롯 學界·產業界人士와 진지한 討論을 벌인 결과 座長 金東一博士는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렸다.

× × ×

우리나라에서 技術革新 問題가 提起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過去 10餘年間 經濟問題가 論議될 때 마다 이와 關聯하여 依例히 이 問題가 擡頭되고는 했다.

그러나 그 實踐面에서 볼 때 學論이 形式的이거나 것저래에 지나지 않았고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이 惰性化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企業人들은 外國技術의 導入을 唯一한 技術革新 方案으로 생각하여 왔고 技術人들은 그 나름대로 使命感을 느끼고 있는 있으나 政策決定이나 最高經營面에서 疎外된채 消極的으로 겨우 自己 職場을 지키는데 不遇했다.

勿論 以上과 같은 데두리 안에서 우리의 經濟가 發展해온 것은 事實이다. 이와 같이 不健全한 與件下에서 成長했으니 우리의 經濟가 많은 脆弱點을 內含할 것도 當然하다. 따라서 8·3 緊急措置가 取해진 緣由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技術革新이 產業發展의 必須的인 것이라고 할진데 그 實現을 爲하여 企業人과 技術人은 이제 眞摯하게 이 問題를 파고 들어가야 할 때가 왔다.

8·3緊急命令 第63條에 技術開發準備金の 積立을 獎勵하는 規

定을 設置한 것도 政府가 이 問題를 從來보다도 좀 더 具體的으로 實踐性있게 다룬 것으로 劃期的인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여기 今後 다루어져야 할 問題點을 추려보자.

첫째 : 우리나라의 技術革新이란 무엇을 意味하며 그 內容을 어떻게 規定해야 할 것인가?

둘째 : 各企業體에 있어서 革新을 要하는 技術의 內容이 무엇이며 長期的인 眼目에서... 革新의 方向을 어떻게 定할 것인가?

셋째 : 이것을 解決하고 所期의 目的을 達成함에 있어 技術人·企業人 및 政府가 實踐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러한 問題點에 對해 올바른 方案을 作成하여 이를 널리 國民에게 알리고 한便 政府에 建議하여 이의 實踐을 促求하고 相互 責任있는 活動을 繼續해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技術問題는 內容이 多岐할 뿐만 아니라 그 革新을 爲한 接近方法 또한 多角度이기 때문에 上記한 成案과 그의 實踐을 爲하여는 經濟學者를 包含한 經濟人과 技術人이 從來와 같이 서로 遊離됨이 없이 合心協力하여 非常한 努力을 持續的으로 傾注할 것이 要請된다.

이와 같은 巨創한 作業에는 各種 部門別의 產學 兩界 多大數의 專門人員이 動員되어야 하며 따라서 相當한 時日과 經費를 必要로 한다. 뿐만아니라 從來에 없었던 이러한 試圖가 單只 即興的인 데 그쳐서는 안되므로 그 窮極의 目的을 達成하기 까지 持續的이고 組織的인 活動을 展開하기 爲해 產學技術革新審議會(假稱)와 같은 機構를 設置할 것을 提議하는 바이다.